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여가동기와 여가기능도에 관한 연구*

Adolescents' motivation and ability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이은희**

강사 민현선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Lee, Eun-Hee

Lecturer : Min, Hyun-Sun

〈Abstract〉

Adolescents' motivation and ability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levant variables were also explored. The participant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Seven hundred and forty one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four subcategories: 'self-development', 'sociality training', 'relaxation', and 'fun'.
2. The 'relaxation motivation' was the highest among the adolescents, and 'sociality training motivation' was lowest. High school students had relatively stronger motivation than middle school students.
3. Adolescents' ability to perform leisure activities consisted of 'control', 'enjoyment', and 'self-confidence'.
4. Male students had a higher leisure activity performance ability than female students. The score for 'enjoyment abilit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elf-confidence', and then 'control ability'.
5. Major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leisure performance ability were gender, leisure attitudes, self-development motivation, sociality training motivation, and relaxation motivation.

▲주요어(Key Words) : 여가동기(leisure activity motivation), 여가태도(leisure attitudes), 여가기능도(leisure performance ability), 청소년(adolescent)

1. 문제제기

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생식기의 성숙으로 자신의 동일성과 연속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시기이면서, 생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이 사회

적 역할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는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시기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체성장과 관련되어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도 있을 수 있고, 의지의 대상이 가족의 영역에서 또래집단으로 옮겨가는 시기인지라 또래집단이나 친구들과의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여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긍정적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INHA-31477)

** 주 저 자 : 이은희 (E-mail : eunhee@inha.ac.kr)

인 여가활동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포하며 또한 일상적인 학업에서 쌓이는 긴장과 권태를 해소할 수 있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교육은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짜여진 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 여가생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여가활동이란 보수와는 상관없이 자유로이 추구되어 직접적인 만족을 얻는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학업이나 노동 등의 업무, 수면, 식사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내는 시간 이외의 활동을 총칭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는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그들의 여가활동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여가활동은 주변 요인들의 많은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은 여가활동에 대해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변요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여가활동은 "소비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들의 여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의 심화로 인해 이들의 소비지향적 여가관에 대한 사회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여가활동은 신체적 활동 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성인들의 여가활동이 정적 활동인데 비해, 이들은 스포츠 활동 등 신체적 활동 중심의 동적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여가 활동은 그 활동 유형에 있어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청소년 여가 활동은 그들 부모들의 사회문화적·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오치선·권두승, 1991). 이것은 청소년이 가정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여가활동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고려할 때 이는 가정관리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여가활동이 전인적 발달과 사회화 과정을 돕고 집단 내 협동심과 공동체감을 증대시키며, 심리적 안정감과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한상철, 1998), 가정관리에 있어서의 청소년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생활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여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주부들에 치중되어 온 실정이다(박미석, 2002; 홍성희, 1998; 홍성희, 김성희, 1997; 김외숙, 1991). 반면에 교육학, 체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청소년 여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김석훈, 1998; 윤

종효, 2000; 양선정, 2001; 김기열, 1997; 박준웅, 2000; 한담석, 1998; 한창우, 1997), 연구설계나 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시기는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이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생활과학 분야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여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여가기능은 여가 경험을 통하여 여가참여의 심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여가참여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갖게 되는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으로서, 여가기능의 결여는 여가활동을 하게 될 경우 여가 권태를 느끼고 여가활동을 중단, 포기하거나 혹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탈 행동을 촉발하게 된다. 반면에 우수한 여가기능을 획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여가만족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자아성취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조현숙, 1994). 단순히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는 청소년 여가활동의 본질적인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제한적이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인 여가기능의 수준을 파악하고 여가기능의 구성요인과 이의 수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기능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는 여가교육이나 여가지도,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영향요인 중 하나로 여가동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청소년들의 여가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지도나 교육,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마련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가동기가 여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가활동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누가 청소년인가'하는 정의에 관한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은 분야마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범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청년과 소년'이라고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소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

는 모든 연령의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상으로 청소년이라는 말은 청년과 소년을 합해 놓은 것으로서, 여기에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간다'는 시간적 의미와 '청년도 소년도 아닌 것'과 같은 정체감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모두 청소년이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론들도 청소년기를 발달과정에서의 과도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도기라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이종복 외, 1998).

한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자로 하며, 근로기준법은 소년 근로자를 18세 미만으로, 형법은 14세까지를 형사미성년으로 규정하며, 청소년 기준법에서는 9세에서 1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권이중, 1984).

그러나 사회통념상으로 청소년기의 범위는 중·고등학생의 연령층을 일컫는다(Koropka, 1973). 정승재(1998)도 우리에게 통용되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중·고등학생, 혹은 사춘기로 인식된다고 하였으며, Haviland와 Scarborough(1981)는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였다.

2) 청소년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일생에 있어 청소년기에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신체발달이 일어난다. 신체의 내부 기관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생식기와 생식기능이 발달하고 체격이 발달하여 제2차 성징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발달한 신체와 운동 능력, 그리고 성적 발달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활동하게 되는 모든 활동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박은혜, 2000). 사춘기의 신체적·성적 발육이 진행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나쁜대로의 이미지를 형성해 간다. 이것을 신체상(body image)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갖는 자신에 대한 신체상은 청소년들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이종복 외, 1998).

실제로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에 의한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변화는 청소년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Hurlock(1975)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고 싶어하고, 잘 울며, 지나치게 수줍음으로 타거나, 화를 잘 내며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도 이들의 신체적·성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때 부모나 가족 또는 청소년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가 이들의 신체적·성적 변화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할 때,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사춘기의 신체 변화가 성숙을 향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청소년들이 이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2) 인지발달

Horn과 Catell(1966)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능력은 유

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으로 구분하여, 유동성 지능은 14-17세까지 절정에 이르렀다가 연령증가와 함께 쇠퇴하는 반면, 결정성 지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기억할 때, 젊은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장·노년층은 더딘 반면, 집안 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인생사의 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젊은 사람보다는 장·노년층의 생각과 판단이 더 정확한 것을 흔히 보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Horn과 Catell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동성 지능은 청소년기 동안 그 변동의 폭이 큰데, 이때의 변화 정도에 따라 성인기의 지적능력이나 삶의 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인지 발달의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정에서는 이들의 지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단순한 입시위주의 공부를 넘어선 지적 자극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아정체감

자아를 찾고 자신의 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인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자신을 찾기 위해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갑작스런 신체적·정신적 변화로 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시기이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혼란 속에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많은 혼란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박은혜,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특히 가정은 청소년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집단이므로 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하며 또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4) 정서발달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서는 순수한 반면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청소년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아동기에는 사건 중심이었으나 청소년기가 되면 대인관계중심으로 옮겨간다. 부모와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문제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청소년들의 정서를 대부분 지배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순수하고 쉽게 동요된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감동을 잘 받으며, 노래가사에도 쉽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셋째, 정서표현이 내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청소년들의 정서는 정조(情操, sentiment)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일기를 쓰

거나 편지를 쓰는 등 글이나 노래 등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감정 표현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기가 되면 신경질이 많아지고 조급해지며 잘 흥분하게 된다. 특히 가족 안에서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고 부모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부끄러움이 많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며, 얼굴이 잘 붉어진다(이종복 외, 1998:29).

따라서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이 힘들어 할 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2. 여가동기

1) 여가동기의 개념 및 차원

‘사람들이 왜 여가를 즐기는가’ 또는 ‘사람들이 여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여가동기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동기가 활동(activity), 사람(people), 시간(time)에 따라 공통성 내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가활동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어 여가만족을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Crandall(1980)은 사람들을 욕구에 따라 군집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수의 욕구들을 적절한 수로 묶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활동의 종류 또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국민 여가생활에 대한 공공정책을 확립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Crandall(1980)은 사람들에게는 17개의 여가 욕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문명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을 즐기기 위함, ㉡일상적 책임감으로부터의 탈출, ㉢신체적 단련, ㉣창조성, ㉤휴식 및 회복, ㉥사회적 접촉,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이성과의 접촉, ㉨가족접촉, ㉩인정 및 지위, ㉪사회적 권력, ㉫이타주의, ㉬자극추구, ㉭자아 실현, ㉮성취·도전·경쟁, ㉯시간 때우기, ㉰지적 심미주의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17항목들간의 중요도는 체계화되지 않았고, 이 항목들의 구체성 혹은 일반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요인들끼리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17 욕구요인들을 확장, 압축,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가의 의미를 주관적 경험에서 찾고자 한 Unger와 Kernan(1983)의 연구에서는 여가 상황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여섯개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여가활동 동기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 여가는 내적으로 동기화되며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으로서, 여가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이다.
- ㉡ 지각된 자유(perceived freedom); 강압이나 강제 없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여가의 어원인 schole도 원래 노동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많

은 학자들이 일과 여가를 구분하기 위해 「강제적/자유적」의 연속체를 제안한 바 있다.

- ㉢ 몰입(invovement); 활동에의 전적인 몰입이나 열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심리적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소우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하며 현실로부터의 상상적 도피를 가능케 하는 차원이다.
- ㉣ 각성(arousal); 사람들은 여가를 통해 불일치, 즉 새로움, 변화, 놀라움, 복잡성, 불확실성으로부터의 긴장고조를 통한 각성을 추구한다.
- ㉤ 숙달(mastery); 환경을 정복하거나 자아를 시험하는 숙달감이 주는 보상적 경험을 말한다.
- ㉥ 자연발생성(spontaneity); 강제적 활동과는 달리 여가는 일상적이거나 계획, 예상, 고정된 것이 아니며 즉흥적인 것이다.

이 여섯 차원들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본 결과 내재적 만족, 지각된 자유, 몰입등은 모든 상황 맥락에서 존재하는데 반해 각성, 숙달, 자연발생성은 활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기를 욕구충족적 차원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특정 활동이 아니라 전반적 여가 활동에의 참여 이유에 대한 보편적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행해진 Beard와 Ragheb(1980)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왜 여가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이유를 네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여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 지적(intellectual) 요인; 학습, 창조, 심미적 동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학습, 탐색, 발견, 사고 등과 같은 순수한 정신적 활동과 관련된 동기
- ㉡ 사회적(social) 요인; 우정, 타인의 존경 등을 포함하며, 대인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가 동기
- ㉢ 자극회피적(stimulus avoidance) 요인; 휴식, 스트레스해소를 포함하며, 과다한 자극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동기
- ㉣ 능력-숙달(competency-mastery) 요인; 건강과 신체유지, 숙달을 위한 충동을 포함하고, 개인의 환경통제 능력을 높여주는 자기 확장 과정의 일부로서의 동기

2) 관련연구의 고찰

동기라는 개념은 본래 행동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부여하며 행동의 강도나 지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김태갑(1982)은 여가활동 동기가 개인적 목표 설정 과정을 거쳐 여가의 선택 즉, 선호행동으로 나타나고 그에 의해 여가 참여가 이루어지며, 어떤 여가 참여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다시 동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강나미·김은실(1988)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갖는 이유로 ‘자신의 교양과 건강을 위해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를 꼽고 있었다. 또한 지영숙(1985)의 연구

에서도 주부들이 여가 이유로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함'을 가장 많이 꼽고 다음으로 '가족 단란'을 들고 있었다.

도시인의 여가에 대한 의식과 동기를 조사한 김규호(1986)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창조적인 삶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Unger와 Kernan(1983)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여가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주부를 대상으로 여가 의식을 조사한 지영숙(1985)은 20대 주부는 여가를 통해 자아를 강조하고자 하는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의 소득액이 적을 경우는 공동사회적 대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여가를 즐기는데 비해,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개인주의적 생활행동을 위해 여가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해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외숙(1978)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로서 상류층에 있어서는 '기분전환이 된다'(39.1%)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하류층은 '자녀교육상 좋다'(51.7%)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하였다. 장윤희(1991)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들의 여가동기에 있어서는 자기발전적 동기가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가족적 동기, 휴식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동기와의 관계를 연구한 Pierce(1980)의 연구에서는 여가 동기 중 친밀감, 성취, 사고 등에서 학생들은 낮은 경향을, 교사 집단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열(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주로 교과학습을 위한 여가참여 동기를, 여학생은 주로 교우관계를 위한 여가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1학년과 3학년은 교우관계, 2학년은 봉사활동을 위한 여가참여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과학습,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체단련,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교우관계를 위한 여가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양선정(2001)의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를 여가동기로 가장 많이 꼽고 있었고, 중학생의 경우는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로 많은데 반해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생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를 두 번째로 꼽고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창우(1997)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 이유로 남학생은 '스트레스 해소'를, 여학생은 '피로회복 및 휴식'(서울지역)과 '자기 만족과 삶의 보장'(지방지역)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기능

1) 여가의 기능

여가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

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러한 역할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가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갖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희정, 2000).

(1) 여가의 개인적 기능

프랑스 여가 사회학자 Dumazedier(1976)는 여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회복기능; 일상적 활동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기능을 해소시켜 주는 이완·완화기능(Relaxation)으로 일상생활에 압력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보완·회복시켜준다. ②기분전환기능;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오락기능(Entertainment)으로 인간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권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기능이다. ③자기개발기능; 자동화, 표준화, 전문화된 생활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기능(Personal Development)으로 의무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 방법을 제공하여 준다.

Meyersohn(1976)은 여가의 세 가지 기능을 확대하여 ①휴식 또는 회복 기능 ②기분전환의 기능 ③성취욕구를 실현하는 기능 ④정신재생(Spiritual Renewal)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2) 여가의 사회적 기능

Murphy(1974)는 여가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사회적 역할수행을 이행함으로써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도와주고 ②사회 또는 집단의 목표수행을 이행하여 사회전체의 목표달성에 일조하고 ③결속감, 귀속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결속을 유지시키므로 사회적 통합을 돕는다고 하였다. Parker(1974)도 여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우게 하며 집단적 사회적 목표를 수행하게 도와주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여 Murphy(1974)와 매우 유사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가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도와주어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놀이와 기타 집단 여가활동은 이들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여가활동은 민주사회적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여가는 사회통합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현대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 사회적 일탈행위를 구제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최근 서구사회에서 여가교육을 중요시하는 것도 여가가 사회적인 긴장완화 기능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욕구불만에 대한 갈등, 좌절감, 정서적인 불안 등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이다(한창우, 1997).

2) 여가기능척도(LDB: Leisure Diagnostic Battery)

(1) 여가활용기능의 중요성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는 사회 교육을 위한 예비 학습단계

이며 자발적인 참여 학습의 장이다. 여가 시간은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여가 선용은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여가선용의 중요성은 여가가 일에서의 해방, 운동 부족의 보충, 인간관계의 개선, 교육기회의 계속적 제공, 창의력 신장, 심리적 갈등 해소, 정서적 안정 등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통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사회적 노동의 활력을 재충전시키는 여가에 대한 활용 능력의 결여는 무의미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가 활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가의 참여 기술과 여가 참여의 심리적 가치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가 활동능력이 결여되어 여가 권태를 경험하게 되어 여가활동을 중단, 포기하거나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탈행동을 촉발하게 된다.

반면에 우수한 여가 활용 기능을 획득한 청소년은 여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가 만족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자아 성취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다(조현숙, 1994).

(2) 여가가능척도의 특성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활용된 여가가능 척도는 여가가능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 시간과 여가활동 참여에 기초한 여가의 객관적 해석의 단점과 제약을 전제하고, 여가를 정신적 상태로 간주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여가의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

여가를 시간이나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여가를 자유정신적 상태로 여기는 것과는 여가지도 또는 여가계획에 있어 서로 상이한 관점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여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프로그램의 참여도에 따라 좌우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화할 수 있는 느낌이나 인지 과정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여가 환경을 생성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나인숙, 1996).

조현숙(1994)은 여가가능이란 개인이 자신의 여가의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며, 이러한 경험에 의하여 어떠한 유형의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여가의 역할이 중대함에 따라 여가 기능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정희정(2000)은 여가가능이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전체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가가능이란 여가의 경험을 통하여 여가참여의 심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여가참여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갖게 되는,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가가능척도의 평가결과는 여가가능을 극대화하고 여가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

라서 여가가능척도의 특성은 첫째, 여가 참여자의 여가가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둘째, 여가가능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케하고 셋째, 여가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시키며 넷째, 가치, 목적 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원형중, 1989).

(3) 여가가능척도의 구성요소

여가가능척도(Leisure Diagnostic Battery)는 Witt와 Ellis(1985)가 청소년의 여가활동에서 이들의 여가경험에 대한 자유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이를 원형중(1989)이 번안하여 신뢰도 검사($\alpha=.81$)를 마친 척도를 여러 연구자(정규열, 1998 ; 나인숙, 1996 ; 조현숙, 1994 ; 정희정, 2000)들이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여가활동에 대한 자신감(competence), 조절력(control), 필요성(need), 참여심취도(depth)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25문항이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여가활동을 통해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일반적 능력을 제공받아 여가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여가활동에 대한 조절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가활동의 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여가활동을 통해 휴식, 에너지 보충, 카타르시스, 보상, 창조력 표현 등의 내면적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넷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심취도는 여가활동 중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 생각과 행동의 일치, 흥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참여 의식을 갖는 정도를 의미한다(Witt & Ellis, 1985).

3) 관련연구의 고찰

김용암(1992)은 '청소년의 여가활용기능에 관한 분석'에서 남학생은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실시에 적극적인 반면, 여학생은 여가시간 이용과 시간 중의 활동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가참여를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하는 기능은 남학생이 높고,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계획한 여가활동을 변동없이 실행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여가활동시 자신감에 관한 6개의 문항 중 여가활동시의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이 높았다. 여가활용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대상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두고 지도 방법이나 내용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형중(1993)의 '수원지역 대학생의 여가가능도 분석'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여가가능의 차이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여자대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여가가능도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집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대학진학과 함께 여가기능도가 약화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열(1998)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여가동기가 교우관계 또는 교과학습인 경우는 자신감, 여가동기가 신체단련인 경우는 참여심취도, 여가동기가 봉사활동인 경우는 조절력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여가동기가 신체단련 또는 봉사활동 또는 교과학습인 경우는 자신감, 여가동기가 교우관계인 경우는 참여심취도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여가동기에 관계없이 자신감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희정(2000)의 연구에서는 여가기능을 선용성, 탐구성, 자신감, 심취도, 조절력 등으로 구분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취도와 자신감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학생들은 자신감, 실업계 학생들은 조절력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칙적 여가활동에의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선용성의 기능이 높았고,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선용성이, 부모의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심취도, 자신감, 탐구성 등의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현숙(1994), 나인숙(1996), 한창우(1997)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여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장윤희(1991)의 연구에서는 여가동기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발전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자기개발활동과 가족·가정 관련활동, 사교활동에의 참여를, 휴식적 동기는 자기개발활동, 가족·가정 관련활동에의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적 동기는 가족·가정 관련활동과 종교·사회활동에의 참여를, 모방적 동기는 사교활동과 소일활동에의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여가태도와 유형별 여가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는 소일활동을 제외한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교·종교활동의 경우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가질수록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긍정적인 여가태도는 목적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여가활동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홍성희·김성희(1997)의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갖는 노인일수록 여가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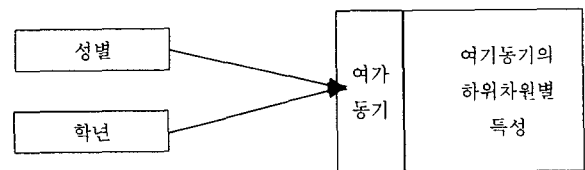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동기의 구성요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여가기능의 구성요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성별, 학년 등의 사회인구적 특성 외에 여가동기와 여가태도를 설정하였다. 여가태도는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가질수록 여가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참여가 많은 것이 여가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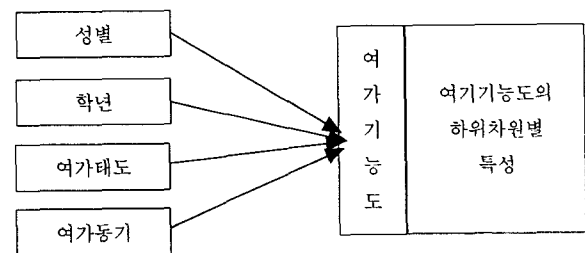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의 여가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즉 단순히 학업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 혹은 여가 역시 자기 수련이나 계발의 일환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인지 등의 여가동기는 향후 여가에 대한 태도나 여가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가동기와 여가기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자 하여, 여가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즉 여가동기의 각 구성요인에 따라 여가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는 연구설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여가동기 >



<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여가동기는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차원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여가동기의 경향은 어떠하며, 청소년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여가기능도는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차원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 여가기능도의 경향은 어떠하며, 청소년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청소년의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교 및 남녀의 비율이 고르게 되도록 하여, 서울시 반포본동의 S여고, 상계 10동의 O중학교, 대전의 S중학교와 S고등학교, 인천의 Y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의 B고등학교 등을 선정하였다. 2003년 9월5일-10월30일까지 총760부를 배포하였으며,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74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도구

1) 여가동기 척도

청소년의 여가동기 척도는 이들이 어떤 동기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가동기 척도는 장윤희(1991), 박은혜(2000), 양선정(2001), 강영이(1995), Crandall(1980), Tinsley와 Kass(197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했다(Cronbach's α =.91).

2) 여가태도 척도

여가태도란 평소에 여가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태도를 의미한다. 여가태도 척도는 김기열(1997), 장충사(1992), 김영준(1988), 강영이(1995)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여가기능도 척도

여가기능이란 여가의 경험을 통하여 여가참여의 심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여가참여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갖게 되는,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여가기능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조현숙(1994), 정규열(1998), 나인숙(1996), 정희정(2000), 한창우(1997)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0.0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여가동기, 여가기능도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가동기와 여가기능도의 하위차원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여가태도 및 여가동기, 기타 관련 변수가 여가기능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40.4%, 여학생이 59.6%로 여학생 비율이 약간 높게 포함되었고, 중학교 1, 2, 3학년이 각각 10.3%, 15.9%, 24.7%로 중학생이 절반 가량인 50.9%였고, 고등학교 1학년이 25.0%, 고등학교 2학년이 24.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스스로 평가하여 응답한 가계경제수준은 82.2%가 '중(중상 52.5%, 중하 29.6%)'이라고 응답, 반 이상이 스스로를 중상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달 평균 용돈은 1-2만원이 26.5%, 3-4만원이 28.9%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했으나, 7만원 이상인 경우도 1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용돈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 도	%	변 수		빈 도	%
성 별	남 학 생	299	40.4	학 년	중학교 1학년	76	10.3
	여 학 생	442	59.6		중학교 2학년	118	15.9
한달 평균 용돈	1만원 미만	81	11.0		중학교 3학년	183	24.7
	1-2만원	195	26.5	고등학교 1학년	185	25.0	
	3-4만원	213	28.9	고등학교 2학년	178	24.1	
	5-6만원	120	16.3	경제수준	상	68	9.6
	7-10만원	67	9.1		중상	372	52.6
	10만원 이상	60	8.2		중하	209	29.6
					하	58	8.2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여가동기의 하위차원 구성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청소년의 여가동기에 대해 의미를 가지는 몇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여가동기의 각 영역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여가동기는 네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각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 검토를 통해, 각 차원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서 각각 '자기개발 동기' '사회성훈련 동기' '휴식 동기' '유희 동기'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정규열(1998)의 연구에서 여가기능을 '교과학습' '교우관계' '신체단련'으로, 양선정(2001)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및 휴식' '자기만족의 삶의 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구분된 각 하위차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기개발 동기'는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하거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봄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 등 스스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데서 여가활동의 동기가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가활동을 단순히 즐기거나 쉬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데서 여가활동 동기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성훈련 동기' 역시 단순히 휴식이나 즐기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자기개발 동기와 유사한 점을 갖는다. 그러나 자기개발 동기가 새로운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사회성훈련 동기는 심신을 단련하고 타인과의 화합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돕는 등 사회와의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자신을 수양하거나 단련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보다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휴식 동기'는 여가를 자기개발이나 사회성훈련과 같이 또 하나의 발전 혹은 수련 계기로 생각하기보다는, 학업 등의 부담에서부터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데서 여가활동의 동기가 비롯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유희 동기'는 휴식 동기와 마찬가지로 여가를 학업 등의 일상과 분리된 쉴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휴식 동기가 단순히 편안히 쉬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유희 동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표 2> 청소년의 여가동기 요인분석 결과

(N=727)

요인	문항	평균(SD)	요인 적재치	아이겐 값	분산변량 (누적변량) (%)	크론바흐 a
자기 개발 동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3.54 (1.07)	.617	3.363	16.02 (16.02)	.818
	성취감, 자신감, 완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87 (1.06)	.446			
	지식이나 기술을 터득하고 쌓기 위해서	3.41 (1.18)	.695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3.86 (1.10)	.522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3.80 (1.11)	.586			
	나의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기 위해서	3.62 (1.19)	.768			
	교양을 쌓기 위해서	3.00 (1.21)	.588			
사회성 훈련 동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2.68 (.97)	.613	3.019	14.38 (30.39)	.763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3.48 (1.12)	.701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3.88 (1.02)	.598			
	가족과의 대화, 화합을 위해서	3.23 (1.14)	.775			
휴식 동기	성격을 변화시키고 의지력을 기르기 위해서	3.50 (1.17)	.635	2.760	13.15 (43.54)	.729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위해서	4.39 (.85)	.692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4.25 (.92)	.670			
	여가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4.01 (1.04)	.455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4.04 (1.04)	.686			
유희 동기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95 (1.01)	.614	2.226	10.60 (54.14)	.748
	생활을 즐기고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기 위해서	3.83 (1.04)	.380			
	일상생활에서 탈피하고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서	3.92 (1.10)	.749			
	자연을 만끽하고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3.27 (1.21)	.735			
	흥미를 충족하고 모험과 도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3.67 (1.21)	.743			

높이에 몰입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여가활동의 주요 동기가 된다.

여가동기의 하위차원을 이루는 이 네 개 요인이 청소년 여가동기의 54.14%를 설명하고 있었다.

2. 청소년 여가동기의 경향 및 성별·학년에 따른 차이

네 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된 여가동기가 청소년에게서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분석 및 t-test를 실시한 결과가 <표 3>과 같다.

각각 7문항, 5문항, 5문항, 4문항으로 이루어진 여가동기의 총점평균점수를 각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토대로 여가동기의 경향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계발 동기, 사회성훈련 동기, 휴식 동기, 유희 동기의 평균 점수는 각각 3.58점, 3.35점, 4.12점, 3.67점으로, <그림 1>에 보여지는 것처럼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여가를 편안히 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휴식 동기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유희 동기였으며, 그 다음이 자기계발 동기, 그리고 사회성훈련 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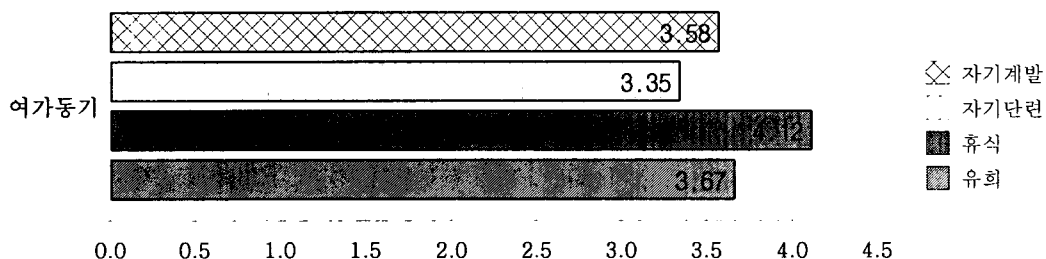
이러한 여가동기의 네 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여가 동기가 자기계발이나 사회성훈련 보다는 휴식이나 유희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선정(2001)의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휴식을 위해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는 동기가 가장 강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자기계발 동기를 비롯한 네 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여가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여가동기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학업부담이 증가되면서 실제로 여가활동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고 그 동기 역시 보다 명확해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네 개 하위영역 모두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여가동기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학년별로 비교해볼 때 각 하위차원의 순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선정(200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다음으로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를 중요한 동기로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동기

	전 체		성 별			학 년		
	총점평균 (SD)	평균 ¹⁾ (SD)	남학생(297)	여학생(437)	t	중학생(371)	고등학생(362)	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자기계발 동기(7문항)	25.08 (5.49)	3.58 (.78)	24.64 (5.54)	25.35 (5.44)	-1.737	24.60 (5.50)	25.54 (5.44)	-2.325*
사회성훈련 동기(5문항)	16.75 (3.88)	3.35 (.78)	16.46 (4.02)	16.93 (3.76)	-1.610	16.44 (3.86)	17.04 (3.88)	-2.118*
휴식 동기 (5문항)	20.59 (3.41)	4.12 (.68)	20.36 (3.72)	20.76 (3.16)	-1.531	20.07 (3.52)	21.14 (3.20)	-4.325***
유희 동기 (4문항)	14.68 (3.46)	3.67 (.86)	14.68 (3.32)	14.68 (3.55)	.011	14.19 (3.41)	15.18 (3.44)	-3.931***

¹⁾ '총점평균점수/문항수'로 계산된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 p<.05, ** p<.01, *** p<.001



<그림 1> 청소년의 여가동기 경향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경우는 두 번째 동기로 '생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3. 청소년 여가기능도의 하위차원 구성

여가기능도란 여가를 잘 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여가기능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청소년의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기 전에, 여가기능도가 어떤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여가기능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통해 여가기능도가 어떠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여가기능도는 크게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었으며, 각 하위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명칭으로서 각각 '조절능력', '향유능력' 및 '확신능력'이라는 명칭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하위차원 구성은 정규열(1998)의 여가기능 척도에서 사용된 '자신감' '참여심취도' '조절력' 등의 구분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각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들을 토대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가조절능력'이란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여가활동의 영역이나 범위,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동료의 참여나 반응 등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여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위차원을 이루는 '여가향유 능력'이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스스로 즐거움이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여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표 4>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요인분석 결과

(N=727)

요인	문항	평균(SD)	요인 적재치	아이겐 값	분산변량 (누적변량) (%)	크론바흐 a
여가 조절 능력	나는 여가활동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3.26 (.96)	.670	4.386	21.93 (21.93)	.8726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3.30 (1.01)	.741			
	나는 일반적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3.66 (1.04)	.67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잘 할 수 있다	3.66 (1.01)	.733			
	나는 여가활동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3.30 (1.01)	.73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게끔 설득할 수 있다	3.43 (1.03)	.602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게끔 할 수 있다	3.38 (1.00)	.559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28 (1.03)	.42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할 수 있다	3.46 (.93)	.695				
여가 향유 능력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여가활동에 참여해서 이를 해소한다	3.85 (1.08)	.585	2.938	14.69 (36.62)	.7777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에는 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3.80 (.98)	.717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잊어버린다	3.93 (1.06)	.738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다	4.12 (.91)	.797			
	나는 여가를 통해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3.58 (1.08)	.622			
자기 확신 능력	여가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 준다	3.50 (1.01)	.739	2.887	14.43 (51.06)	.7658
	나는 재미있는 여가활동을 많이 알고 있다	3.40 (1.05)	.638			
	나는 하고자 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3.46 (.97)	.673			
	여가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나는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종종 갖는다	3.67 (1.06)	.651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중에 창조적일 수 있다	3.24 (1.03)	.475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정말로 몰두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	3.99 (1.03)	.438				

세 번째 하위차원을 이루는 '자기확신 능력'이란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여가활동이 단지 휴식 차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의 여가기능도가 이렇게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은, 여가를 잘 보내는 능력이란 단순히 여가시간을 가볍고 즐겁게 보내는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가활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여가활동 참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능력,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가기능도의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이 세 개 요인이 청소년 여가기능도의 51.06%를 설명하고 있다.

4.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경향 및 성별·학년에 따른 차이

청소년 시기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하여 제대로 여가를 보내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여가기능

도가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여가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의 여가기능도가 '여가조절능력' '여가향유능력' 및 '자기확신 능력'의 세 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므로, 이 각 하위차원의 경향을 비교해 봄으로써 여가기능 향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및 t-test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표 5> 참조), 이들의 여가기능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1.30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여가기능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학생(평균 70.53점)에 비해 남학생(평균 72.53점)의 여가기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년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에 비해 여가기능이 현저히 낮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교육단계별로 볼 때 여학생의 경우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여가기능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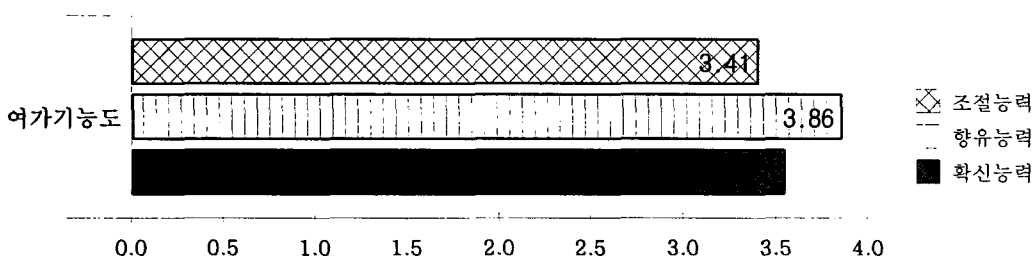
여가기능도를 하위차원별로 구분해서 그 경향을 살펴보면, 여가향유능력이 평균 3.86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

<표 5>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여가기능도

	전 체		성 별			학 년		
	총점평균 (SD)	평균 ¹⁾ (SD)	남학생(297)	여학생(437)	t	중학생(371)	고등학생(362)	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조절능력 (9문항)	30.73 (6.35)	3.41 (.71)	31.22 (6.73)	30.43 (6.03)	1.614	30.25 (6.38)	31.26 (6.24)	-2.173
향유능력 (5문항)	19.30 (3.73)	3.86 (.75)	19.42 (4.09)	19.21 (3.47)	.736**	19.19 (3.73)	19.40 (3.74)	-.760
확신능력 (6문항)	21.28 (4.15)	3.55 (.69)	21.91 (4.18)	20.89 (4.03)	3.301	20.66 (4.26)	21.95 (3.88)	-4.259*
여가기능도 (20문항)	71.30 (11.85)	3.57 (.59)	72.53 (12.86)	70.53 (11.06)	2.178*	70.08 (11.91)	72.60 (11.70)	-2.867

¹⁾ '총점평균/문항수'로 계산된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 p<.05, ** p<.01



<그림 2>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경향

이 자기확신능력(평균 3.55점)이었고 여가조절능력(평균 3.41점)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동기에서 자기개발이나 사회성훈련 동기에 비해 휴식이나 유희 동기가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편안히 쉬고 즐겁게 놀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이에 따라 여가기능도 면에서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향유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여가활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하위차원별 차이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서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여가향유능력이었다. 여가조절능력이나 여가확신능력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향유능력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정(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취도와 자신감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확신능력 면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간의 차이를 보인 모습과는 달리, 학년에 따라서는 여가조절능력과 여가향유능력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여가확신능력 영역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는 여가활동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부담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줄어들지만, 자기확신능력 차원에서 고등학생들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아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여가활동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5. 청소년의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관련,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들의 여가기능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여가활동이 청소년기에 해야 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이들이 어떤 동기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여가기능도가 어떤 하위차원들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가기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변수들이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여가동기 뿐 아니라 이들의 여가태도가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및 여가태도 변수와 더불어 여가동기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변수들이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및 여가기능도의 각 하위차원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성별, 여가태도, 자기개발동기, 사회성훈련동기 및 휴식동기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가기능도가 높고(b=-1.602), 여가태도가 긍정

<표 6> 관련변수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여가기능도		조절능력		향유능력		확신능력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1.602									
	학년	-.183									
여가태도		.487	.400***	.191	.294***	.461	.381***	.156	.366***		
여가동기	자기개발동기	.195	.090*	1.957E-02	.017	-1.77E-02	-.026	.190	.252***		
	사회성훈련동기	.407	.144***	.339	.226***	7.639E-02	.086*	-2.18E-02	-.022		
	휴식동기	.475	.133***	.139	.074	.266	.239***	7.756E-02	.063		
	유희동기	.196	.057	.128	.070	4.222E-02	.039	2.201E-02	.018		
상수		21.88		10.12		6.157		5.526			
F값		69.788***		38.104***		50.760***		52.291***			
Adu R2		.41		.27		.33		.34			
D-W 계수		1.87		1.90		1.940		1.908			

1) * p<.05, ** p<.01, *** p<.001

2) 성별은 가변수로, 남학생이 1, 여학생이 0이다.

적일수록($b=.487$), 자기계발동기가 높을수록($b=.195$), 사회성훈련 동기가 높을수록($b=.407$), 그리고 휴식동기가 높을수록($b=.475$) 여가기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여가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성훈련동기, 휴식동기, 자기계발동기,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여가기능도의 41%를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형성이 여가기능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휴식동기 뿐 아니라 자기계발동기나 사회성훈련동기가 여가기능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가를 자기계발이나 사회성훈련의 계기로 삼는 자세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결국 여가기능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가기능도의 세 개 하위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을 살펴보면, 각 영역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

우선 여가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가태도($b=.191$) 및 사회성훈련동기($b=.339$)로,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사회성훈련동기가 클수록 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이들 두 변수가 여가조절능력의 27%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열(1998)의 연구에서 여가동기가 봉사활동인 경우 조절력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훈련동기로 구분된 문항들이 사회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수양하거나 단련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성훈련동기와 봉사활동은 유사한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는, 여가활동의 동기 중 심신 단련이나 수양 등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동기가 클수록 여가활동을 하면서 활동 자체나 함께 참여하는 동료에 대한 조절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향유능력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b=-.200$), 여가태도($b=.461$), 사회성훈련동기($b=7.639E-02$), 휴식동기($b=-.266$)로,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휴식동기가 강할수록, 사회성훈련동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향유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수가 향유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3%였다. 사회성훈련동기가 클수록 조절능력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서, 향유능력은 휴식동기와 보다 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처음에 어떤 동기에서 여가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실제로 여가를 보내는 능력에 있어서도 영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확신 능력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815$), 여가태도($b=.156$) 및 자기계발동기($b=.190$)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확신능력이 높고,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계발동기가 클수록 확신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여가동기가 교과학습에서 비롯될 경우 자신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정규열(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자기확신 능력에 대한 이들 세 변수의 설명력은 34%에 해당했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가태도는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어떤 여가동기를 가지느냐에 따라 여가기능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향상을 위해 여가태도나 여가동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기능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과 더불어 하위차원의 구성을 살펴보고,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여가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여가동기는 '자기계발 동기', '사회성훈련 동기', '휴식 동기' 및 '유희 동기'의 네 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네 개 하위 여가동기 중에서 청소년들은 휴식 동기(평균 4.12점)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다음이 유희 동기(평균 3.67점)였으며, 그 다음이 자기계발 동기(평균 3.58점), 그리고 사회성훈련 동기(평균 3.35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동기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또한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여가기능도는 크게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여가조절능력', '여가향유능력' 및 '자기확신 능력'으로 명명한 각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넷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여가기능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여가기능도는 100점 만점에 71.30점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여가기능도가 높았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기능도의 하위차원별 경향을 보면, 청소년들은 여가향유능력(평균 3.86점)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기확신능력(평균 3.55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여가조절능력(평균 3.41점)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여가동기에서 자기계발이나 사회성훈련 동기에 비해 휴식이나 유희 동기가 더 강했던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차원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가향유능력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뛰어났으며 자기확신능력 면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뛰어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년 및 여가태도와 여가동기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여가태도, 자기개발동기, 사회성훈련동기 및 휴식동기가 전반적인 여가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여가기능도가 높고,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개발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성훈련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휴식동기가 높을수록 여가기능도가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이 여가기능도의 41%를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여가기능도의 각 하위차원별로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가태도는 세 차원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였던 반면 여가동기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가조절능력에서는 사회성훈련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했던 반면, 여가향유능력에 대해서는 휴식동기와 사회성훈련동기가, 그리고 자기확신 능력에서는 자기개발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단순히 휴식이나 놀이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이나 사회성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과중한 학업부담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이나 단련의 의미를 가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휴식이나 유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여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자칫하면 일회적 활동으로 그치기 쉽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개발이나 사회성 훈련이 단지 학업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들이 여가를 이와 같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여가프로그램과 이런 프로그램에의 접근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실용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갖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여가기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가동기에 있어서 휴식동기나 유희동기가 중심이 되었듯이, 여가기능도에 있어서도 여가향유능력에 비해 자기확신능력이나 여가조절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여가활동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학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활에 젖어있는 청소년들이 여가의 휴식, 오락적 측면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가를 잘 보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여가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현실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여가활동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게끔 지지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제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 여가활동에 있어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이 이들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이 청소년 시기의 여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단지 개별 가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청소년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가정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앞으로 청소년 여가활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청소년들의 실제 여가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깊이있는 여가동기와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9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2월 16일

【참 고 문 헌】

강나미·김은실(1988). 도시주부의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살림본 제3집.

강영이(1995). 청소년 여가활동의 인과구조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이중(1984). 사회교육과 청소년 지도. 배영사.

김규호(1986). 도시민의 여가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열(1997). 고등학생의 여가태도와 여가장애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준(1988). 중학생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남녀비교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암(1992). 청소년의 여가활용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외숙(1978).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3권, 49-68.

김태갑(1982). 우리나라 대도시의 여가계획을 위한 생활양식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인숙(1996).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가기능도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2000).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선정(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분석을 통한 여가활용에 관

- 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치선·권두승(1991), 청소년 여가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고찰. *교육문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75-196.
- 원형중(1989). 여가 활동 기능 척도의 번역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 제6권.
- 원형중(1993). 수원지역 대학생의 여가 기능도 분석.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 제10권.
- 이영기(1992). 인구사회적 변인에 의한 여가태도의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 등(1997).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1-15.
-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중사(1992).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여가활동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열(1998). 서울시 중학교 학생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재(1998). 건전한 청소년문화 창출을 위한 방송의 역할 제고, *한국청소년연구* 제27호. 전기.
- 정희경(2000). 청소년의 여가활용 실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숙(1994). 청소년의 여가성향과 여가활동 기능 척도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영숙(1985). 한국 도시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제21권, 23-41.
- 한창우(1997). 청소년들의 기능 진단에 관한 비교 연구 - 서울·지방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 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4호, 253-257.
- Beard, J. G. & Mounir, G. Ragheb,(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Crandall, Rick.(1980). Motivations for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45-54.
- Dumazedier, J.(1976).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Free Press
- Meyersohn, H. D.(1976). *Community Recre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Murphy, J. F.(1974). *Concept of Leisure: Philosophical Impl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icheal D. Berzonsky(2000). *Theories of Adolescence*. Blackwell Publisher.
- Fishbein, M.&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d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Murphy, J.F.(1974). *Concept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Prentice Hall, Inc., p126.
- Parker, S.(1974).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3rd ed.). New York: Praeger Publisher Inc.
- Paul S. Kaplan(2004). *Adolescence*,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e and Suffolk County Community College.
- Pierce, R. C.(1980). Dimensions of Leisure I: Satisfac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 Ragheb, M.G. & J.G. Beard(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Second Quarter.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nsley, H. E. A. & R. A. Kass(1979). The Latent Structure of the Need Satisfying Properties of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 Unger, L. S. & Jerome B. Kernan(1983). On the Meaning of Leisure: An Investigation of Some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381-392.
- Witt, P. A. & Ellis, G. D.(1985). Development of a Short Form to Assess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3), 225-233.
- Zollo, P.(1996). Talking to teens, *American Demographics*. Nov. 17(11), 22-29.